

주요 OECD 국가들의 파업성향 국제비교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평균 47일의 파업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13개 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임(표 1 참조).
 - 파업성향(strike rate)이란 파업이나 직장폐쇄 같은 노동쟁의 행위로 인하여 1년 동안 발생한 총 근로손실일수를 임금근로자 수(1,000명 단위)로 나눈 값으로, 노동쟁의 수준을 국제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임.
 - 유럽의 국가들은 파업성향이 높은 국가나 낮은 국가나 모두 파업성향의 연도별 변동 폭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음.
 - 10년(2004~2013) 동안의 평균 파업성향은 13개국 가운데 일본(0.2일)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웨덴(5.3일), 멕시코(6.6일) 등이었음. 반면, 파업성향이 두드러지게 높은 국가는 덴마크(126.4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89.4일), 핀란드(70.1일) 등이었음.
 - 2004년에 80.5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파업성향은 바로 다음 해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 각종 노동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그림 1 참조).
 -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1995년 31명에서 2000년 14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00년에 144명이었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2013년에 200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K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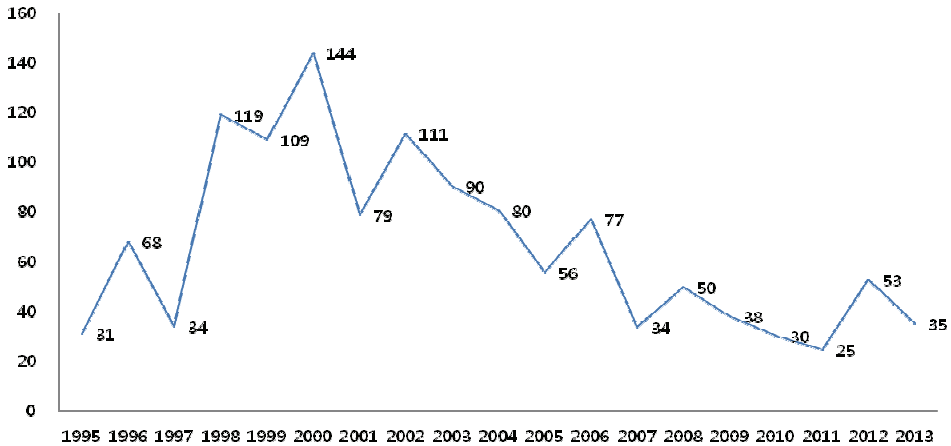
〈표 1〉 주요 OECD 국가들의 파업성향 지수 국제비교(2004~2013)

(단위: 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¹⁾		
											2004 ~2008	2009 ~2013	2004 ~2013
한 국	80.5	55.8	77.2	33.6	49.9	38.1	30.1	24.7	52.7	35.1	59.0	36.2	47.0
영 국	37.0	9.0	30.2	41.5	29.9	18.4	14.7	55.7	10.0	17.6	29.5	23.3	26.4
덴마크	30.4	20.3	33.7	36.1	718.7	6.0	7.7	6.1	4.1	380.3	171.0	80.3	126.4
핀란드	20.4	322.2	40.1	43.8	7.3	43.5	149.3	60.0	8.0	12.3	85.7	54.5	70.1
스웨덴	4.0	0.3	0.5	3.4	26.0	0.5	7.2	0.1	8.9	1.7	7.0	3.7	5.3
네덜란드	8.7	5.9	2.2	3.5	16.2	0.7	8.3	3.1	30.7	-	7.4	10.6	8.8
이탈리아	44.1	56.1	33.6	55.8	42.6	-	-	-	-	-	46.4	-	46.4
스페인	302.4	60.8	56.9	70.4	90.1	81.8	43.4	31.7	89.1	78.5	112.6	64.5	89.4
호 주	46.0	26.6	15.0	5.4	20.8	14.0	13.1	24.4	27.0	12.8	22.3	18.3	20.2
뉴질랜드	3.8	17.6	15.9	6.4	-	7.8	3.4	2.6	42.5	-	11.0	14.2	12.6
일 본	0.2	0.1	0.1	0.6	0.2	0.1	0.4	0.1	0.1	0.1	0.2	0.2	0.2
미 국	7.9	10.3	20.1	9.3	14.5	1.0	2.3	7.8	8.5	2.2	12.5	4.4	8.4
멕시코	7.0	8.5	24.1	7.2	10.0	0.1	0.0	1.6	3.0	-	11.4	1.2	6.6

주: 1) 이용가능한 통계치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의 수치를 합산하여 연간 평균치를 계산하였음.
 자료: 노동손실일수는 ILO(<http://www.ilo.org/ilostat>).
 임금근로자 수는 OECD(<http://stats.oecd.org>).

〈그림 1〉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간 노동손실일수 추이(1995~2013)



자료: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 「노동동향보고서」와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였음.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